

<http://doi.org/10.5253/kpac.2023.52.8>

金澤述 詩에 있어서의 相衡的 意象과 그 含意

강동석*

차 례

1. 들어가며
2. 冥世와 憂歎의 絶望歌
3. 清明과 忘憂의 希望歌
4. 결론

| 국문초록 |

본고는 근현대 한학자 후창 김택술 한시에 있어서의 양태, 즉 절망과 희망이라는 상충적 의상을 살펴보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주지하듯 근현대는 일제강점기, 광복, 6.25동란 등 역사의 굵직한 사건이 있는 시기이다. 당시를 보냈던 한학자 김택술은 西勢東漸이 심해지자 衛正斥邪를 실천하고자 노력한 인물로서, 탄포와 총알이 오가는 세상을 한탄하는가 하면, 날마다 그의 집 앞에 총칼로 무장한 채 줄지은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그의 시에는 근심과 탄식이 주를 이룬다. 그것은 그가 밝힌 것과 같이 나라가 망하고 도가 없어진 때를 당해서이다. 결국 그 감정의 결은 절망가로 옮겨졌다.

하지만 흥쇠를 반복하는 자연처럼 인간사도 그러할 것이라고 믿은 후창은 맑고 밝은 심상 또한 노래하며 희망을 노래하기도 했다. 청산, 달, 높은 산, 맑은 물 등을 읊으며 그 안에서의 소쇄함과 청명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유학을 통해 얻은 節義, 誠敬, 無私心 등의 가르침으로 그 근심을 극복했으며, 청명한 의상은 결국 희망가로 이어진 것이다.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원

핵심어 : 근현대, 한학자, 후창 김택술, 우탄, 형상화

1. 들어가며

본고는 後滄 金澤述(1884~1954)의 생애사 및 교유관계를 조망하고, 그의 한시에서 자주 연출되고 있는 憂歎의 이미지, 淸明한 이미지 등에 대해 그것의 동인과 형상화 방식을 살펴본 후, 그에 따른 세계관과 정신지향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창처럼 다양한 주제, 다기한 장르를 창작했던 시인을 연구할 때면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힌다. 그것은 내용으로 엮을 것인지, 이미지를 연구할 것인지, 아니면 문체에 따른 수사를 연구할 것인지 판단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작품을 반복하며 읽어 그 특징을 적출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혼란이 따른다. 그것은 전통 한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근현대 삶의 모습, 어휘, 분위기, 구조화 방식 등이 산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작가론에 있어서의 기본 패러다임인 사상, 역사, 문학의 차원을 어느 정도는 따르면서, 그것이 일제 강점기와 근현대를 보냈던 유학자로서의 면모, 아울러 순수 시인으로서의 감정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어려운 점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후창은 “강절의 시에 화려한 흥취가 많고, 내 시에 근심하고 탄식하는 뜻이 많은 것은 참으로 소양의 깊이와 자득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절이 태평하여 아무 일도 없는 날을 만나고, 내가 나라가 망하고 도가 없어진 때를 당한 것도 때가 그러했기 때문이다.”¹⁾라고 하여, 그가 우려하고 탄식하는 작품을 많이 창작했다는 의도성을 밝힌 구절이 등장한다. 많

1) 卷29, <次康節首尾吟 十一首> “康節詩多和樂之趣, 余詩多憂歎之意, 是固所養淺深自得無之異. 然康節遇太平無事之日, 余當國亡道喪之際, 亦時然也.” 본고의 번역은 2023년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출간한 『국역 후창집』을 따른 것이며, 필자가 임의로 수정하여 논문에 반영한 것임을 밝힌다.

은 작품을 반복하며 읽을 때, 저자가 연구자에게 직접 주는 반가운 힌트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가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憂歎’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반대로 묘사했던 ‘清明’의 심상이 어떠한지, 시인의 회로애락과 처세관 및 그것들의 형상화 방식, 정신지향 등을 밝히고자 한다.

후창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문예론을 시작으로 학문과 사상, 간재 성리설의 계승, 간재 기질체청설, 심성론 등이 이루어졌다.²⁾ 최근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국역 후창집』을 출간하여 심층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여러 연구자는 후창의 사상, 교육, 문학, 역사 등 모두 4개 영역을 정치하게 살폈다.³⁾

이상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본고에서는 그간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후창의 생애와 교유관계를 먼저 밝히고, 아울러 그가 창작한 시의 굵은 두 감정선, 의상 등을 살피고 그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김택술은 1884년(고종 21년) 6월 6일 井邑郡 梨坪面 滄東에서 태어났다. 字는 鍾賢이고, 號는 後滄이다. 南宋 朱子(1130~1200)가 만년에 滄洲精舍를 짓고 후학을 강학한 바 있는데, 후창의 스승 良齋 田愚(1841~1922)가 그의 뒤를 이으라는 의미로 ‘후창’이라는 호를 내린 것이다.⁴⁾

15세에 星州李氏를 부인으로 맞이하였고, 17세에 天安 金谷에 가서 간재 전우를 스승으로 모시는 예를 행하였다. 25세에 일제의 지배 아래 있는 육지를 떠나 섬으로 들어가겠다는 신념으로 王登島에 들어가 거처할 섬을 찾다가 9월

2) 박순철, 「後滄 金澤述의 文藝論 研究」, 『중국학논총』 45, 2015.; 박순철, 「後滄 金澤述의 學問과 思想」, 『유학사상연구』 36, 2009.; 김근호, 「後滄 金澤述의 간재 성리설 계승과 그 의미」, 『공자학』 47, 2022.; 신상후, 「良齋 氣質體清說의 계승과 발전: 後滄 金澤述의 心性論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6, 2023.

3) ‘후창 김택술의 학문과 사상’ 6월 23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최. 배제성, 「간재 전우와 후창 김택술의 성리설 연구-생지위성을 중심으로」; 김승룡, 「후창 김택술 한시를 이해하기 위한 시론-의고시를 중심으로」; 박순철, 「후창 김택술의 교육사상과 교학」, 함영대, 「후창 김택술의 역사인식과 대처」-20세기 유교 지식인의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논리.

4) 卷30, 「用前韻自勉“澤述弱冠時, 先師爲改所居滄洞里, 號爲滄東. 又書滄東處士後滄居士八大字而贈之, 以寓勸學朱子之意.”

界火島 壯子洞에 머물렀다. 32세에는 일제가 恩賜金을 보낸 것을 물리쳤다. 35세에 『蘆華同異攷』를 지었는데, 이는 蘆沙 奇正鎭(1798~1879)과 華西 李恒老(1792~1868)의 학문이 자연스럽게 부합한다는 주장을 全集 내용을 비교하고 서로 다른 점을 추출해서 비판한 것인데, 간재 선생이 世敎에 보탬이 된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39세에는 호남 유림으로 추대되어 대표로 충청북도 淸州의 華陽洞(현 충북 괴산)을 방문하여 <華陽洞遊錄>을 지었다. 화양동에는 萬東廟뿐만 아니라 尤菴 宋時烈(1607~1689)의 묘가 있어 畿湖 유림들의 성지였기에 유학자 김택술이 가지는 의미는 컸다. 41세에는 동문수학하던 石農 吳震泳(1868~1944)이 간재 선생의 遺訓을 어기고 總督府의 승인 아래 문집 『良齋私稿』를 추진한 일이 발생하자, 玄洞墓下에서 동지 59명과 함께 그를 성토했다.⁵⁾ 42세에는 정음 萬宗齋에서 강학을 시작하였는데, <講規>, <敎課規則>, <試考規則> 등을 지어 교육과정과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교과규칙>을 살펴보면 班을 학업의 정도에 따라 갑·을·병·정으로 분반하였으며, 반마다 과목과 교재를 규정하였으며, 이후 후학 강학에 힘썼다.

71세,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明德理 山水洞에 장사 지냈다. 이에 셋째 동생인 拓齋 金億述(1899~1959)은 “아, 형님의 풍채는 난세

5) 간재 선생은 문집 간행에 대하여 “왜놈들이 이 땅에 있는 한 문집을 내지 말라.”고 하였기에 문집 간행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오진영을 둘러싼 嶺南 학자들은 왜인 관청의 출판 인가를 받아서라도 출간을 늦출 수 없으며 이 또한 선사 말년에 받은 遺命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김택술을 비롯한 湖南 학자들은 왜적에게 출판 인가 받아 출간하는 것은 스승의 높은 학덕과 의리를 욕보이는 일이며, 인가 받아 출간해도 괜찮다는 유명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로, 이는 선생을 속이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택술은 이 때문에 排日黨으로 지목되어 전주 감사국에 여러 번 호출을 당하였고, 일차 피랍되어 무수한 고문을 당했다. 이후 그는 간재 선생의 유고를 편찬하고 교정하여, 스승이 직접 확인한 원본 『華島手定本』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 1926년에는 오진영을 주축으로 한 영남지방 문인들이 간재선생의 문집을 재편집하여 스승의 유지를 무시하고 경남 사천 龍山亭에서 鈔活字를 이용하여 간재선생 晉州本을 발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듬해 김택술은 <良齋私稿晉州本考辨錄>을 지어 手定本과 晉州本을 정밀하게 대조하여 진주본이 간재의 본뜻과 의리에 어긋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가 우뚝 서 있는 듯, 학이 고고하게 서 있는 듯. 가슴속의 도량은 맑은 가을물인 듯, 개인 날의 달빛 같았습니다. (중략) 슬프고 외로운 발걸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쓸쓸하고 외로운 이 몸은 물가로 산속으로 헤매며 길이 끝나 돌아갈 곳 없는 듯하고 소경이 안내자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라고 슬픔을 표출하기도 했다.⁶⁾

후장은 “남아의 큰 뜻은 호기롭고 끝없으니, 곧장 우주의 안을 지탱하고자 했네. (중략) 다만 한스러운 것은 남은 생애 재주 없어, 장년 삼십 년을 창동에 누워있었던 것.”⁷⁾이라고 할 정도로 젊은 시절 그가 배웠던 유학을 기반으로 窮經致學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6.25동란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그러지 못했다. 결국 30년 동안 井邑 梨坪面 滄東里에서 지내면서, “시 공부는 잘못을 바꿔 당물을 따르고, 성리학은 정밀하게 하기 어려우니 송나라 유학을 믿네.”⁸⁾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가 이러한 學文觀으로 평생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생애에 이어 교육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의 교육관계를 언급함에 있어 스승인 간재 전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가 남긴 수많은 글에서도 증명하듯, 李珥의 ‘氣發理乘說’을 계승하여, 스승이 주장했던 ‘心卽氣’, ‘明德是氣說’, ‘心本性’, ‘心學性’, ‘性尊心卑’, ‘性師心弟’, ‘未發氣質體清說’ 등을 이어 기호학은 물론 낙론계 학설 역시 한층 발전시킨 공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辛卯先師諱辰感懷記事>는 五言長篇 348句 1740字로 스승을 향한 애뜻한 마음이 어느 작품보다도 잘 드러나 있다. 작품에는, 그가 17세에 학문하는 요령에 어두워 선생의 강학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春秋左氏傳』 강학, 執贄 과정, 禮說 교정 편집, 講會 모습, 奇正鎮과 權宇仁의 理氣說 논쟁, 후장이라는 편액 과정, 『良齋私稿』 원고 과정, 전주, 고부, 예

6) 이상의 내용은 필자가 작성했던 『『후장집』 해제』(한국학중앙연구원, 2021)의 일부를 수정하고 정리한 것이다.

7) 卷26, <漫題 三首> “男兒大志浩無窮, 直欲撐撐宇宙中. (中略) 只恨殘生才器乏, 壯年三十臥滄東”

8) 卷27, <山齋卽事> “詩工轉癖追唐律, 理學難精信宋儒.”

친, 옥친, 담양 등의 유람, 부친의 묘지명 부탁, 性師心弟說, 스승의 부고, 묘소 참배 등 1900년부터 1922년까지 스승과 보냈던 시간을 敘事와 敘情을 交融하여 잘 표현하고 있다.⁹⁾ 또한 편지에서는 “조국이 망했으니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건대, 옛날 단발령의 재앙이 있었을 때 선친이 선생께 편지를 보내 죽음으로 맹세하고서 태도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선친이 오늘날 살아계신다면 무슨 마음을 지니실까 더욱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풍수지탄의 고통과 下泉의 생각이 마음속에 절절히 교차하여 저도 모르게 목이 메고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찾아볼 기약은 아득하여 정해진 것이 없으니 편지를 마주함에 매우 슬픕니다.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조국은 이미 기울어졌고, 그대 선친은 볼 수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울지 마시게. 내 몸은 노환이 날로 더 심해져서 곧 죽을 것 같네. 아마도 다시는 우리 鐘賢(金澤述)을 보지 못하고 죽을 듯하네. 죽기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서로 마주할 수가 없으니 몹시 슬프고 한스럽네.”¹⁰⁾라고 하였으니, 사제 지간의 돈독한 정을 알 수 있다.

스승 다음으로 문집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무래도 가족이다. 셋째 아우 億述(字 汝安)에게 부친 편지 19편을 비롯, 한시 9수는 여안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인다. <拓齋銘>은 그를 위해 지은 것이다. 또한 아들에게 남긴 시도 적지 않다. 첫째 아들 炯復이 蒙土의 스승이 된 것을 축하한 작품, 둘째 아들 炯泰가 겨울에 약을 구하기에 근심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 셋째 아들 炯觀에게 재능보

9) 卷31, <辛卯先師諱辰感懷記事> “光武歲庚子, 余年方十七. 所學味溪逕, 可謂徒能讀. 聞說蓬山中, 阜比南來說. 儒門風動, 林雲似集. 迢絕月明寺, 往拜其間. 土爭講要義, 經傳禮禮隨. 余將左氏傳, 郎誦一章訖. 人謂是罕見, 先生愛如玉. (中略) 先生身後事, 庶幾無愧怍. 山顏三十年, 此夜每痛盡. 今雖病將盡, 耿耿未接目. 值此亂極日, 後進皆塗色. 當日好淵源, 有誰能接續. 積恨發爲詩, 字字淚痕結. 百七十四韻, 莫曰近猥瀆.”

10) 卷1, <上良齋先生 庚戌> “宗國既亡, 不忍言不忍言. 憶昔薙髮之禍, 先人致書先生以死自誓而不變. 若使先人今日而在者, 又未知見作何懷也? 言念及此, 風樹之痛, 下泉之思, 交切于中, 不覺哽塞而淚迸也. 進謁之期茫無所定, 臨紙悵菀. ○先生答書曰: “宗國已傾, 先丈又不可見, 如之何? 勿泣. 賤身癘疾, 日以益深, 行將逝矣. 恐不復見吾鐘賢而死. 死前所欲奉託者在, 而莫可相對, 殊庸悵悵.”

다 글에 능할 것을 당부한 작품, 넷째 아들 炯謙에게 효제와 대학공부에 정진하도록 훈계한 작품 등이 있다.¹¹⁾

친척 가운데 族兄인 邦述, 淵述, 亮植, 族弟인 承述, 利述, 賢述, 興述, 族叔인 洛龜, 洛成, 洛昇, 洛淸, 洛瓚, 洛春, 洛杓, 戚兄인 邦述, 宗鉉, 崔秉權, 族姪인 炯善, 炯湜, 炯日, 炯敦 등과 수창하거나 차운한 작품도 있다. 사돈 가운데 셋째 아들의 장인 姜采永은 동갑이기도 하여 시를 주고받았으며, 특히 外弟인 子貞 趙濟元과는 많은 시를 수창하기도 했다. 또 사위 朴珍浩에게 준 시도 있다.¹²⁾

동문수학 및 벗으로는 晦叔 金鍾華, 大眞 金鎭根, 金鎭晦, 金宗洛, 朴爽九, 雪竹 李秉殷, 瀛儂 徐文煥, 堂村 孫斗宣, 斗峰 孫聖栗, 裕齋 宋基冕, 景栗 松魯容, 大有 劉千鍾, 澗松 林浩喆, 顧齋 李炳殷, 玄狂 田鎰中(字 士狷), 敬山 鄭基聲, 芝軒 鄭相源, 明伯 崔圭三, 欽齋 崔秉心 등이 있다. 제자로 확인되는 인물로는 子由 金仁述, 正錫 崔秉研, 汝重 崔泰鎰, 昌午 孫東宣, 權在旻 등 많으나, 유독 최태일과 함께한 시간이 많으며, 그와 함께 유람하거나 수창한 시가 많다. 손윗사람으로는 謙齋 金亨載, 可菴 金休哲, 省菴 白南斗, 說齋 蘇學奎, 讓村 林秉龍, 鍊心 田熙舜 등이 있으며, 손아랫사람으로 확인되는 인물로는 權錫柱, 景奉植, 金基洙, 金秀聲, 金庸洛, 金漢斗, 盧秉厚, 朴根浩, 徐厚泰, 孫周卓, 吳炯球, 劉萬鍾, 劉三鍾, 李龍相, 李炳魯, 林鍾元, 張然豐, 崔龜烈, 黃河永, 洪錫奎 등이 있다.

정확한 관계는 알 수 없으나 작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유 인물로는 姜信倫, 鞠瑛煥, 金魯東, 金殷東, 金煒鉉, 金箕重, 金甯漢, 金魯東, 金炳周, 金鍾熙, 羅濟奉, 柳東起, 李起完, 李鍾宅, 林章佑, 朴塽九, 孫斗宣, 宋光燁, 宋宇鎭, 安在旭, 吳秉壽, 吳源弘, 魏赫基, 李起煥, 丁金烈, 鄭泳寔, 崔滿烈, 崔敏烈, 崔載鏞, 崔泰卜, 崔亨植, 洪德義, 洪翼裕, 黃鍵翼, 黃瑞九 등이 있다.

11) 제목은 다음과 같다. <呈成菴族兄 淵述 用前日上先生韻>, <到木洞 呈族兄晦山丈 亮植>, <示族弟興述>, <訪族弟文奎 承述>, <末伏日族弟京能 利述 庄上 七月既望>, <喜復兒爲蒙土師>, <憫泰兒冬天求藥>, <示觀兒>, <戒炯謙>, <贈朴瑒珍浩>

12) 子貞과 주고받은 작품은 문집 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다. 아울러 금강산 유람을 비롯하여 계화도에 갈 때도 언제나 동행한 인물이다. 子貞은 조제원의 字이며, 호는 果菴이다. 子貞을 제목으로 한 작품도 있으나 <同果菴玄狂吟>처럼 호를 제목에 내세운 작품도 적지 않다.

2. 冥世와 憂歎의 絶望歌

후창의 시를 읽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소재들이 등장한다. 이를테면, 시든 국화[枯菊]라든지, 늙은 매화[古梅]라든지, 숨어 지내는 이야기[隱居], 공적인 근심[公憂] 등이 그러하다. 절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국화와 매화 등을 어둡게 표현한 것도 그러하고, 은거와 근심을 표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들의 형상화와 그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근심이 끊이지 않기에

憂不絶

백발의 나이로 근심 견디기 어려우니	憂愁回耐白頭年
늘 냇물이 흘러 모이듯 계속 이어지네	續續常如方至川
극심한 병에 걸린 어린 손자는 겨우 위기 면했지만	劇病嬰孫危僅免
곤경에 처한 아들은 재앙이 계속 이어지누나	難關當子禍相連
운명을 편히 받아들이면 흔들림 없겠지만	縱安運命將無動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되려 다시 흔들리네	未抑情懷却復然
생일에 외롭고 쓸쓸한 감회가 더해지니	添得生朝孤露感
번갈아 앞에 늘어선 위로의 술잔을 모두 사양하네	并謝慰酌迭排前 ¹³⁾

이 작품의 앞뒤 작품으로 보아 회갑에 지은 것으로 확인된다. 수련에서는 60세의 나이로 근심에 힘든 것도 모자라 씀 없는 냇물처럼 모이고 끊이지 않음에 괴로워하고 있다. 특히 시어 ‘憂愁’와 ‘續續’은 저자의 작품 창작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함련의 극심한 병에 걸린 어린 손자와 곤경에 처한 아들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후창은 50세에 차남의 손자를 먼저 봤고 이후 장남을 비롯 외손자까지 보고서 그 기쁨을 시에 남기기까지 하였으나, 위에서 말

13) 卷29.

한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기에 가정사의 불행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경련은 전환의 시도로 시상을 전개해야 하나, 마음이 그렇지 못함을 단적으로 표현하였다. 곧 운명을 편히 받아들이고 마음을 편히 하면 그만이지만 실제로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성과 감성, 머리와 마음이 같을 수 없기에 유자로서의 不動心 실천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다. 미련에서는 매우 기뻐해야 할 회갑에 오히려 쓸쓸함이 더해져 축수의 술잔마저 사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다.

제목부터 ‘憂’를 내세운 작품은 이뿐이 아니다. 후창은 <公憂>, <私憂> 등 특정한 제목의 작품을 통해 근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公憂>에서는 北宋의 范仲淹 고사를 인용하여 나라를 근심하기도 하였고,¹⁴⁾ <私憂>에서는 자식과 손자, 사당과 선영의 위외 등 가정과 자신을 근심하기도 했다.¹⁵⁾ 이렇듯 나라와 가정에 대한 근심을 표현했던 후창에게 또한 한탄스러움을 표출했던 작품이 있다.

한탄스러운 일

有歎

한 손으로 서강의 물을 돌릴 수 없으니	無由隻手激西江
팔도 지역의 백성들이 학철의 신세로다	泗轍生靈八域邦
거리에서 먹을 것 구걸하니 봄 고니 모이듯하고	呼食道途春集鵝
마을에서 돈을 요구하니 밤 삼살개도 놀라네	索錢閭里夜驚獾
사람들은 모두 미인 그리며 주 왕실을 생각하는데	人皆望美思周室
누가 홀로 왜노들 없애서 진나라 창가에 누울까	誰獨鋤奴臥晉牕
위축되어 사방에 갈 곳도 없으니	蹙蹙四方靡所往
이미 저문 도성 문에 방맹은 관을 걸었네	都門已晚掛冠傘 ⁶⁾

14) 卷31, <公憂> “先憂天下一何深, 在昔希文獲我心. 國似空家誰作主, 人歸走默莫能禁. 異端正好紛成隊, 師道猶難快脫陰. 強得忘言亦無益, 不須覓酒細分斟.”

15) 卷31, <私憂> “老去私憂亦重深, 傍人且莫譏多心. 兒孫棄學頭添白, 廟墓無儀淚不禁. 拙計只安居丈室, 晚工豈賴惜分陰. 元來天下何思慮, 須把大公精揣斟.”

16) 卷27.

이 작품은 1930년(戊戌年)에 창작한 것이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일제강점기가 절정에 이른 시기이며, 후창의 나이 46세 때다. 서두에서 시인은 한 손으로 서쪽 강물을 쳐낼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는 일제뿐 아니라 유럽 및 미국 등 서강 세력의 침략을 말하며, 곧 西勢東漸의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실제 시인은 “구라파의 풍조가 급속히 몰려오고 유학의 기풍은 끊어져서 준수한 청년들은 모두 저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을 지키는 자는 노성한 몇 사람만이 외롭게 있을 뿐입니다. 노성한 사람들이 죽으면 누가 다시 이것을 계승하겠습니까.”¹⁷⁾라고 하기도 하고, “삼 년에 재차 고향은 죽음 슬퍼함이 아니니, 위정척사하는 이 몸은 함께할 이가 없네.”¹⁸⁾라고 하며 서양의 침략은 물론이거니와 문물의 유입까지도 근심할 정도로 보수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西潮>라는 작품에서 “서양 사조가 나날이 하늘에까지 뻗어가니, 온 세상이 함께 휩쓸려 서로 빠져드는구나.”¹⁹⁾라고 하기도 하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작은 나루터인양 두 바다를 건넜다 들었으니, 지금 세상에 새로운 전쟁을 더욱 탄식하네.”²⁰⁾라고 하며 혼란한 시대, 전쟁의 아픔을 노래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2구에서 팔도 백성을 마치 물이 마른 수레자국에 놓인 붕어로 본 것이다. 그리고 3, 4구는 그 실상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후반부로 들어 5, 6구에서는 전환을 시도하며 잠시 희망을 노래한다. 그것은 바로 ‘望美’라는 시어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성대했던 주나라 조정처럼 성군이 훌륭한 정사를 펼치길 기대하고, 진나라의 은자 도연명이 한적한 전원생활을 즐기며 북쪽 창에서 잠 깨고 나면 문득 희황 시대의 사람처럼 느꼈다는 전거를 활용한 희망이다. 그러나 다시 7, 8구에서 그 희망은 차가운 현실로 또 전환되어 방망이 관을 벗어 요동의 나그네로 간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에는 충신들이 뜻을 펼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17) 卷4, <答金聖九 辛酉>, “歐巴潮急, 鄒魯風絕, 青年英俊, 皆入于彼, 此之守者, 獨老成幾箇人孑然在耳. 老成之逝, 誰復繼之?”

18) 卷29, <道中> “三霜再哭非哀死, 衛嗣此生無與同.”

19) 卷31, “西潮日日蕩長空, 胥溺靡然舉世同.”

20) “聞涉二洋如小渡, 更歎今世戰爭新.”

주지하듯 후창은 일제강점기, 광복, 6.25동란 등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겪은 인물이다. 그가 단발령의 강제 시행에 대해 읊거나,²¹⁾ 광복의 즐거움을 표현한 작품,²²⁾ 6.25동란으로 인하여 남북분단을 노래한 것²³⁾ 등은 이러한 시대상을 잘 반영한 작품들이다. 다음은 후창이 살았던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처신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환경

環境

지난 일을 증험하여 올 일을 파악하나니	把得將來證已過
우리나라의 환경은 어떠한지 묻노라	大東環境問如何
권력 다투는 국경은 조개와 황새가 버티는 형세이고	爭權國界蚌持鷁
이욕 탐하는 인정은 등불에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구나	貪利人情燈撲蛾
일통의 정전은 은미한 통서가 무너지고	一統正傳微緒墜
각종의 이교는 열성이 벌여 있는 듯하네	各般異教列星羅
이 늙은 몸은 태평 시대를 미처 못 볼 터이니	老夫未及升平見
산림의 궁색한 집에서 또한 한탄해 마지않노라	林下窮廬亦可嗟 ²⁴⁾

수련은 역사를 언급함에 있어 으레 하는 통념이다. 지난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함련과 경련에 있다. 곧 이권을 다투는 세계정세, 그 안에 이욕을 찾는 인간의 마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후창은 어느 날 신문을 보고서 “삼복더위 이글대는 땅에 붉은 구름 피어오르는데, 중국과 일본이 풍진 속에 전쟁한다는 소리가 있네.”²⁵⁾라고 하여 중일전

21) 卷26, <長行歌> 歲戌中秋, 周夷猖獗益甚, 勒行薙髮, 良翁先生作浮海之舉, 余送至海岸, 心甚悵然, 適崔敬存作長篇一首, 叙別離之情, 余亦走筆步韻

22) 卷31, <乙酉七月九日 喜聞倭亡國復之報 八首> “恨深三十六年春, 其奈腥羶四塞塵. 始聽今朝消息好, 秋風邦運一時新. (中略) 呼萬曾於已未春, 幾多義烈擦黃塵. 爲此根因今成實, 太極高旗更色新.”

23) 卷31, <登高> “衰年復見舊山川, 別有風光入眼前. 疆土如何南北裂, 干戈又是亞歐連. 千峰海外歸青帝, 萬萬人間起暮煙. 約伴登高歌一曲, 知音更得野禽傳.”

24) 卷31.

25) 卷28, <見新聞> “庚炎曝地火雲升, 中日風塵戰有聲.”

쟁을 언급하는가 하면, 하늘과 해상 가득한 포탄의 전쟁을 시로 남기기도 하였고,²⁶⁾ 대문 앞에 삼엄하게 줄지은 창칼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²⁷⁾

또한 유자로서 지향한 유교가 무너지고 온갖 종교와 사상이 난무하는 세상도 비판했다. 흥미로운 것은 근현대 문집 한시에서 처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부분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가 <聞時耗慨然>에서 “빈자든 부자든 둘 다 복극이 나누게 되니, 은사의 흥범이 이미 밝게 드러나 있다오. 만약 공산 제도가 천하의 공리라고 한다면, 성현이 외려 참된 도를 모른 것으로 귀결되리라.”²⁸⁾ 라고 했던 부분이 그것이다. 이처럼 함련과 경련에서 국내외 전쟁 및 사상을 언급한 그는, 미련에서 태평 시대를 볼 수 없을 것이며, 산속 궁핍한 곳에서 탄식만 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니, 그의 冥世觀을 작품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창의 희망보다 절망에 가까운 명세관은 유자로서의 進退를 결정하게 이르며 은거지향으로 이어진다.

은거

내 그옥한 거처에는 몇 칸 방이 있을 뿐
한쪽으로는 물이 흐르고 한쪽으로는 산이 있지
아이는 낙엽을 모아서 황혼에 들어오고
나그네 책 들고 눈 맞은 채 돌아온다
소나무와 국화 우연히 있다고 도연명에 건주지 말고
거친 밥과 물만 마셔도 안연이 아닌 게 부끄럽구나
내년에는 한가한 가운데 의취를 활연관통할 것이니
문밖 시끄러운 소리 모두 관여치 않으리라

幽居

我有幽居屋數間
一邊流水一邊山
僮收黃葉乘昏入
客扶青編帶雪還
松菊偶存休擬晉
簞瓢雖在愧非顏
年來慣得閒中趣
門外塵喧總不關²⁹⁾

후창은 자신의 거처를 제목처럼 幽居로 표현했으며, “전부터 명절은 헛되이

26) 卷28, <歲暮悅丈寄老懷詩三篇索和 次韻以呈 三首> “鑿民吞國驚彈礮, 潛海飛天嚇艇車”

27) 卷28, <偶題> “十載關門絕訪尋, 依然戈戟列森森”

28) 卷31, <聞時耗慨然> “貧富雙將福極分, 殷師洪範已昭然. 若云共產爲公理, 賢聖還歸味道真”

29) 卷26.

보내기 어려운 것, 어찌하랴 은거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니.”³⁰⁾라고 하거나, “경험 많은 유인은 한창 헤아려보고, 걱정 큰 촌로는 괴로이 신음하는구나.”³¹⁾라고 하는 등 자신을 ‘幽人’으로 자처한 인물이다. 그리고 2구처럼 山水로 둘러싼 유거의 환경을 언급하며, 3, 4구에서는 한가한 생활상으로 현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5, 6구는 은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도연명과 안빈낙도의 표상인 안연을 통해 자신의 현 모습을 투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7, 8구에서는 어떠한 거름 장치 없이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였다.

인용된 작품뿐 아니라, <白屋>에서 “우연히 오는 영욕이야 말할 필요 있오라, 평생토록 세상과 어긋난 걸 자신하노라.”³²⁾라고 하거나, 孫周후이 약을 준 것에 감사하며 “내 행위가 세상과 맞지 않았기에, 날 미워해 죽이려는 사람 많았네.”³³⁾라고 하였으며, <疊前韻述懷 寄可石時 適除夜>에서 “이 밤에 누가 있어 함께 이야기할거나, 후창은 홀로 후창과 함께 살고 있거늘.”³⁴⁾라고 하는 등 세상과 어긋난 자신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외로움을 노래하기도 했으며, 초연히 세상을 벗어나길 바라는 작품을 짓기도 했다.³⁵⁾

또한 ‘學隱’, ‘習隱’ 등의 시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은거지향을 피력한 바 있으며,³⁶⁾ 은거를 넘어 “까마득한 태평성대의 세상이란, 만 년이나 먼 일인 걸 모르는구나.”³⁷⁾라고 하는 등 다소 절망적인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앞서 살폈던 후창의 환경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읊음이다. 그렇다면 憂歎과 絶望에서 그가 찾아내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30) 卷27, <上元前夜> “從來名節難虛送, 其奈幽人不自由.”

31) 卷27, <上元夕 欲看望月 雲蔽不見> “經驗幽人方寸度, 隱憂野老苦呻吟.”

32) 卷31, <白屋> “倘來榮辱何須說, 自信生平與世違.”

33) 卷29, <謝孫君 周卓 贈藥> “我行戾于世, 人多惡欲死.”

34) 卷28, <疊前韻述懷 寄可石時 適除夜> “此夜有誰堪共語, 後滄獨與後滄居.”

35) 卷27, <次戚兄金公 綜鉉 松齋韻>에서는 “내가 원하건대 더욱 부지런히 힘써서, 초연히 티끌 세상을 벗어나야 하리라.[我願研劬勸, 超然出世塵.]”라고까지 했다.

36) 卷29, <卽事> “不須學隱往山南, 素志嗶嗶慕古三”; <追和崔新菴 滿烈 去春贈韻> “枉過多謝扶衰病, 習隱何能免盜名”

37) 卷27, <偶題 二首> “渺渺羲軒世, 不知隔萬秋.”

까닭이 있어서 지음

有爲而作

머리 들어 묵묵히 동서를 바라보니	舉頭默默望西東
오늘의 이런 말을 누구와 함께할까	此日此言誰與同
천지에 가득한 것이 모두 거짓이니	盈地盈天都作僞
언제 어디에서 공정함이 행해지랴	何時何處可行公
감히 양심 밖에서 비리를 도모하여	敢圖非理良心外
어찌 차마 욕망의 바다에 투신했나	胡忍投身慾海中
고개 위의 눈 맞은 측백나무를 보게나	請看嶺頭經雪柏
예전부터 절의는 빈궁에서 드러났네	從前節義見貧窮 ³⁸⁾

앞선 의로움, 절망이 수련에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함련과 경련에서 거짓과 불공정이 횡행하는 세상, 비리를 도모하고 욕심을 따르는 세상을 비판한다. 이렇게 전개된 시상은 미련에서 전환을 시도한다. 그것은 바로 눈 덮인 측백나무로 추위를 이겨낸 깨끗한 절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후창은 節義를 상당히 강조했던 인물이다. 유자로서 당연하겠지만, 이는 호남의 지역적 문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가 제병 열 폭의 그림 뒤에 쓴 시에는 “호남에 뜻있는 선비 많으니, 의로운 군대가 명성을 길이 떨쳤도다.³⁹⁾”라는 구절이 보인다. 호남의 절의지사를 높이 칭송한 것이다. 다산 역시 일찍이 “우리 湖南 지역은 예로부터 忠臣, 義士가 많은 고장이다. 지역으로 말하면 서울에 밀접하기가 湖西만 같지 못하고, 인물로 말하면 조정의 반열에 오른 자가 嶺南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나라에 大難이 있을 때마다 창의하여 분주히 힘쓴 것은 반드시 팔도에서 제일 먼저였으니, 역시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 아닌가. 壬辰(임진왜란), 甲子(李适의 난), 丁卯(정묘호란), 丙子(병자호란)를 거쳐 戊申(李麟左의 난)에 이르기까지 지난 史牒에 분명하게 실려 있고, 流風이 멀리 미쳐 있으니, 이는 여러 군자가 다 함께 들은 바이다.”⁴⁰⁾라고 말한 바 있으니, 호

38) 卷29.

39) 卷31, <敬題祭屏十幅圖畫後 并序 〇辛卯> “湖南多志士, 師直義聲長.”

40) 『茶山詩文集』 卷22. <全羅道倡義通文> “唯我湖南一方, 卽古忠臣義士之淵藪也. 地之密邇

남의 특색 가운데 節義를 강조한 것이다.

후장은 윤봉길 의사와 그의 아내 裴用順을 위해 노래한 바 있으며, 의사 薛鎭永을 기리며 지은 작품도 있다.⁴¹⁾ 기우만의 제자인 설진영은 1940년 창씨개명을 강요하자 절명시 2편을 남기고 우물에 투신한 인물로⁴²⁾ 그들의 절의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또한 <次汝安詩>에서도 “마침내 비바람 진정되고, 폭염도 응당 사그라지리. 원컨대 동지들과 더불어, 세한의 마음 어기지 않으리라.”⁴³⁾라고 하며 당시 힘든 상황에서도 절의를 잃지 않을 것을 무엇보다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절망 안에서 ‘절의’를 찾으려는 희망을 보인 것이다.

한편, 그가 啓一 黃鍵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경술국치에 나лага 없어진 이후로부터 심장이 무너지고 창자가 뒤틀어져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는 없었으니, 다만 삼려대부 굴원처럼 오래 살아서 세상을 벗어나 신선이 되려는 소원을 지녔으니 상황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⁴⁴⁾라고 한 바 있다. 이 또한 절망 속에서 일말의 희망을 기대한 것이다. 또 <歎世>에서, 천지가 어두워지고, 아버지의 위엄이 떨어지고, 분수를 범하고, 윤리를 멸함을 말하였으나, 마지막에서는 목탁을 얻어 다시 세상을 보전하고, 사람마다 귀먹은 두 귀를 깨우쳐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⁴⁵⁾

於畿甸，不如湖西，人之布列於朝籍，不及嶺南。每國有大難，其倡義奔赴，必爲八路先，不亦休且多矣。壬甲丁丙，以至戊申，前牒昭載，流風遠暨，此僉君子之所共聞也。”

41) 卷31, <尹義士奉吉行>; <裴哲媛行>

42) 卷29, <贊薛義士 三首>

43) 卷26, <次汝安詩 二十首 中 其四> “會當風雨定，虐燄亦應衰。願與同志者，歲寒不相違。”

44) 卷4, <答黃啓一 鍵翼 乙酉> “粵自庚戌無國以來，崩心摧腸，如不欲生。然亦無如之何，只有屈三閭長年度世之願，欲觀其出場。”

45) 卷27, <歎世> 潮急西江打黑風，乾坤鬱瀆視夢夢。親權撲滅頭居下，女位高明月處東。犯分敢訶周孔聖，蔑倫樂尙佛蘇空。安得大鐸環全世，警破人人兩耳聾。

3. 清明과 忘憂의 希望歌

앞 장에서는 후창의 한시 가운데 다소 어둡고 외롭고 절망적 분위기의 작품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맑고 밝은 이미지의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이 또한 후창의 작품의 한 획을 긋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후창 한시를 이해할 수 있는 저변이 되기 때문이다.

청산에 살다

棲碧

청산에 살며 자취 감추고 세상을 잊으니

棲碧藏蹤忘世情

그 누가 나를 모욕하거나 영화롭게 할 수 있으랴

孰能使辱孰能榮

끝없는 풍월은 모두 주인 되어 소유하고

無邊風月都爲主

빼어난 강산은 공경 자리와도 바꾸지 않으리

絕勝江山不換卿

문호가 길이 적막하다고 말하지 마소

門戶休言長寂寞

마음이 절로 청명해지는 게 기쁘다오

心胸惟喜自清明

일상생활에 귀착할 곳을 찾아야 하니

要須日用尋歸宿

성경 두 자를 평생 마음에 간직하리라

二字生平有敬誠⁴⁶⁾

앞서 보였던 은자의 생활은 동일하지만 연출되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1구의 맑음[碧], 3구의 바람과 달[風月], 4구의 산과 물[江山], 5구의 清明 등이 그것이다.

또한 2구에서는 한시에서 忌諱하는 동일 시어 孰 자 疑問詞를 사용하는가 하면, 4구에서는 不定詞 ‘不’ 자를, 5구에서는 禁止詞 休 자를 놓아 의중을 배가시키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독특하다.

7, 8구에서는 ‘日用’과 ‘生平’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誠敬’ 두 글자를 붙임으로써 유자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강조한다. 그가 강학하며 제자 및 자제에게 유

46) 卷31.

학의 덕목을 강조하거나 성리시를 지은 것은 물론이다. 결국 그가 일상생활과 평생에 걸쳐 힘겹던 삶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요컨대 앞서 보았던 憂歎이 인용된 작품에서는 淸明으로 바뀌었고, 그 동인은 바로 誠敬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후창은 공부를 통한 수양도 강조했으나, 자연을 통한 치유도 적지 않게 표현하고 있었다.

달구경

見月

너에게 묻노니 푸른 하늘에 뜬 달은	問爾青天月
어쩌면 저렇듯이 밝을 수가 있을까	那能如許明
그런데 사람 마음은 무슨 일 때문에	人心緣底事
맑지 못하여 항상 괴로워하는가	恒苦未澄清
달에게 묻다.	問月

이렇게 구름 걷힌 밤을 만나니	值茲雲掃夜
정녕 본래 밝은 모습을 본다네	定見本來明
사사로운 뜻을 없앨 수만 있다면	但得除私意
어찌 마음 맑지 못할까 걱정하라	何憂心未淸
달이 대답하다.	月答 ⁴⁷⁾

첫 번째 작품에서는 달에게 어쩌면 그리도 푸르름[靑]을 간직하고 있는지 의아한 태도를 보이고는 바로 사람들은 무슨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바로 시인 자신이다. 앞서 자주 사용되었던 시어 ‘憂’가 여기에서는 ‘苦’로 표현되었으니, 근심에서 괴로움의 단계에까지 오른 것이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달이 대답한 것인데, 이 역시 시인 자신이 찾은 해답이

47) 卷28.

다. 구름에 가려져 있는 밝음[明], 결국 본성 그대로의 맑음[淸]은 사된 마음[私意]을 제거해야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답을 찾은 것이다. 마치 맹자의 성선설을 연상케 하며 실제 그러한 의도로 창작된 작품으로 읽힌다.

후창이 달을 통해 마음을 청명하게 한 작품은 꽤 산재한다. <見新月>에서는 “비바람이 며칠 밤 몰아치다 이제야 개니, 곱디고운 초승달이 창을 밝게 비추누나. 은자는 이 모습 대하매 환희가 생기니, 마음의 때 씻는 것 도와 곱절이나 맑아지네.”⁴⁸⁾라고 하여 은자의 마음을 초승달이 밝게 해 준다고 하였으며, <月夜>에서는 “눈 다 녹아 하늘이 깨끗하고, 달빛 밝아 만상이 텅 비었네. 수많은 집은 인정이 지난 뒤이니, 한밤 물시계가 남은 시간 재촉하네. 뜻과 기운 어찌 그리 맑은가, 흥금은 그야말로 탁 트였네. 누가 알랴 청산에 사는 사람, 조용히 지내는 중에 즐거움 있음.”⁴⁹⁾라고 하여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 주는 달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고 있음은 노래하기도 하였다.

달뿐 아니라 후창의 청명한 이미지, 마음을 맑게 하는 심상은 높은 곳에 올라 지은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중양일에 높은 산에 올라

重陽日登高

높은 곳에 오르면 정녕 마음의 티끌 씻을 수 있으니
가을바람 불고 아름답음 감상할 때일 뿐만이 아니라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선비 얻기 어려우니
하늘 보고 땅을 봐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산에 가득한 나뭇잎은 머지않아 떨어질 테고
몇몇 곳에선 노란 국화가 절로 새로우리라
저녁 무렵에 돌아오니 그저 다시 상쾌해지는데
태고적 달이 옛 의관을 비추는구나

登高正可滌心塵
非獨秋風賞美辰
難得始終如一士
願爲俯仰不慙人
滿山木葉行將墜
幾處金葩自在新
向晚歸來聊復快
先天月照舊衣巾⁵⁰⁾

48) 卷30, <見新月> “風雨連宵始見晴, 嬋妍初月照窓明. 幽人對此生歡喜, 助洗心塵一倍淸.”

49) 卷30, <月夜> “雲盡一天淨, 月明萬象虛. 千家人定後, 午夜漏催餘. 志氣何清絕, 胸襟正豁如. 誰知棲碧子, 樂在靜中居.”

50) 卷28.

수련에서부터 높은 곳에 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더러움을 말끔하게 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고 승경을 감상할 뿐만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득 함련에서 한결같은 선비, 하늘과 땅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선비상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앞장에서 제시했던 節義와 무관하지 않다.

경련에서는 시선이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온다. 그런데 그 자연의 무한함을 강조했다. 창작 시기가 중앙일이므로 곧 겨울이 될 테고, 추위에 나뭇잎은 서서히 질 때가 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뭇잎이 떨어지면 노란 국화가 핀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후창이 시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希望歌이다. 미련에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快’ 자를 사용하여 드러냈으며, 대구에서 아주 오래 전 달이 자신의 옷을 비춘다고 했으니, 앞서 제시했던 자연의 무한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후창은 높은 곳에 올라 그 청명함과 동시에 마음을 맑게 한다는 시를 적지 않게 지었다.⁵¹⁾ 그가 시집에 남긴 장소만 해도 天台山, 頭流山, 牛山, 斗升山, 望帝峯, 天王峯 등 수많은 장소에서 청명한 심상을 드러냈으며, 그 안에서 때로는 절망을 보이기도 했지만 자연의 무한함을 표상하면서 인간사도 그럴 것이라는 희망을 보인 것이다.

한편 청명의 심상과 희망은 물을 통해서도 형상화된다.

단비

喜雨

남풍에 홀연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데

南風吹雨忽霏霏

산창에서 멀리 바라보니 기쁜 마음 날아갈 듯

推看山牕喜欲飛

황금빛 새 보리는 응당 이미 익었겠고

金色新牟應已熟

뾰족한 모습의 어린 벼도 어느덧 통통해졌겠지

針形穉稻忽添肥

51) 卷28, <寄朴甥珍浩> 頭流天王峯, 聳出九霄中. 我欲陟其巔, 豁然灑塵胸. 豈爲恣遊觀, 所存諒有由. 出門招之子, 千里誰共輶. 仲尼乘桴日, 曾許由也從. 今固無其人, 事亦非所同. 但怪年少中, 却無聞喜勇. 試思曾鳳翔, 有不氣自湧.

시골 늙은이 지팡이 짚고 왔다갔다 물소리 들으며	村翁扶杖頻聽水
마을 사내는 호미 잡고서 다투어 사립문 나가네	巷豎持鋤競出扉
단지 바라건대 이 백성 길이 배부르고 즐겁게 지내며	但願斯民長飽樂
큰 거리 안개 낀 달 온전히 기심을 잊기를	康衢烟月渾忘機 ⁵²⁾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다. 시인들마다 가뭄과 단비에 대한 작품이 반드시 있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방증한다. 위의 작품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가뭄 이후 내리는 단비에 시인은 수련에서 기쁜 마음이 마치 날아갈 것 같다고 하였다. 그가 봄비를 노래하면서 객지 생활의 고충을 잊게 해 줄 정도의 소쇄한 감정을 노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⁵³⁾ 그리고 함련에서는 황금색이라는 색채를 통해, 바늘처럼 뾰족한 형상을 활용하여 들관의 벼를 읊고 있다. 자연의 시선은 경련에서 인간으로 옮겨져 왔다갔다 하는 노인, 일하러 가는 사내를 향한다. 이들 모두 작품에서 그리고 있지 않지만 모두 기쁨이 여백에 가득하다. 미련에서 시인은 백성의 안위로까지 확장한다. 그가 꾀꼬리를 노래하면서 가여운 백성을 노래한 작품과도 궤를 같이 한다.⁵⁴⁾ 또한 여기에 사용된 시어 ‘忘機’란 앞서 인용된 작품에서의 샅된 마음을 잊는 것과 통한다. 요컨대 인용된 작품은 단비를 노래하며 자신의 마음, 나아가 백성의 편안한 생활까지 노래한 희망가인 것이다.

산당에서 -폭설에 홀로 앉아

山堂 -大雪中獨坐

새벽에 일어나 창 밀치매 눈이 산에 가득하니

晨起推窓雪滿山

52) 卷26.

53) 卷26, <春雨> 紛紛細下山家, 布穀初啼日欲斜. 愁煞三旬未歸客, 洽蘇千朵晚開花. 乍沾輕羽燕回幕, 驚打開眠鷺走沙. 晴後風光應更好, 超棲別境向人誇.

54) 卷27, <黃鳥 二章> 朝日清佳, 庭樹陰綠. 何來黃鳥, 破此寂寞. 聞爾好音, 我懷有感. 遂賦黃鳥二章. 嗟爾黃鳥, 笙簧百轉. 哀我民生, 溝壑幾轉. 樂子之風流燕晏. 賦也. 嗟爾黃鳥, 遍身金衣. 哀我民生, 百結布韋. 樂子之富貴炫輝. 賦也.

옥빛 같은 세계 그림으로도 그리기 어렵다오	玉瓊世界畫猶難
높고 낮은 길을 누가 변별할 수 있을까	高低道路誰能辨
왕래하는 사람 발자국 하나도 보이지 않네	來往人蹤總未看
집에 돌아감은 바다를 넘는 것 같으니 어이 하라	歸舍其如同隔海
굶주림 면했으니 감히 밥을 가져오길 바랄쏘나	療飢不敢望傳餐
이불 꺼안고 종일 있으며 되려 복록 자랑하니	擁衾盡日還誇福
원안이 누워 춥다고 외친 것보다 낫구나	勝似袁安臥叫寒 ⁵⁵⁾

수련의 정경 묘사는 시인이 표현해낼 수 있는 최대치이다. 그것은 그림으로 도조차 감내하기 어려울만큼 아름답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함련은 수련에서 보였던 광폭의 그림은 근거리로 가져와 길도 사람의 발자국도 하나 없는 것다고 하여 원근 묘사를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경련에서는 풍경에서 생활상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폭설로 인한 귀가의 어려움, 그러나 다행히도 식사는 해결하여 만족한다고 했다. 그리고 미련에서는 따뜻한 이불 덮고서 온종일 있을 수 있는 여유에 감사함을 표현했다.

원안은 後漢 때 사람으로 눈이 내릴 때면 쓸지 않고 문을 닫은 채 누워만 있던 사람이다. 폭설이 내리면 사람들이 눈을 치우고 밖으로 나와서 걸식을 하였지만, 원안은 “큰 눈이 내려 사람들이 모두 굶고 있는 판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게 여겨져서 그랬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다. 그런 명성을 얻은 이보다 본인의 생활이 어찌면 낫다고 한 것으로 보아, 명성이 알려지지는 않았어도 이러한 ‘安分知足’의 생활이 너무도 좋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러한 지족의 생활은 다음 작품의 창작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즐거운 마음

樂意

즐겁다 강학이 거문고 생황보다 나으니

樂哉講學勝琴笙

55) 卷30.

서실에서 해가 바뀌는 줄도 몰랐네	不覺芸牕歲換星
해상에 눈 녹으니 산이 여전히 푸르고	海上雪消山猶碧
하늘에 구름 걷히니 달이 유독 밝구나	天中雲盡月孤明
문을 닫고 이미 지금의 풍속을 끊었고	杜門已絕今時俗
책을 펴서 옛날의 준걸과 서로 친하네	開卷相親古俊英
입명안신이 다른 데에 있지 않으니	立命安身他不在
천지에는 본래 변치 않는 법도가 있네	乾坤自有常經

제목의 ‘樂’은 ‘憂’의 반대어라 할 수 있다. 제목을 즐거운 마음이라 했으니 과제만으로도 그 창작 의도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우선 1구에서는 산문처럼 도치법을 활용하여 즐거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곧 학생들과 강학을 하니 이것은 풍류를 즐기는 것보다 낫고, 시간이 가는 줄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다. 『논어』의 “發憤忘食，樂以忘憂”를 시로 표현한다면 이것과 같다. 그리고 3, 4에서는 무언가 갇히고 막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해방을 통해 청명함을 드러내고 있다. 곧 눈이 녹아 푸른 산이 드러나고, 구름 걷혀 밝은 달이 보인다고 말한 것이다.

5, 6구에서는 은자로서의 삶, 그리고 尙友千古를 지향하는 유자로서의 모습을 피력한다. 그리고 7, 8구에서 즐거운 마음이란 입명안신이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이라면서 그것이 또한 천지의 법도와 부합함을 언급한다. 결국 마음의 안식처는 강학이며, 옛 서적을 읽으며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근심을 없애는 수단으로 본 것이다.

주지하듯 후창은 정읍 萬宗齋에서 42세부터 71세까지 강학을 평생 업으로 삼은 인물이다. 그가 후학을 양성하고, 수시로 경서를 읽었던 것은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등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할 수 있었던 忘憂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4. 결론

후창이 남긴 천삼백 여 수의 한시를 정독하다보면 두 심상의 축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절망에 가까운 冥世觀과 그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작품이다. 서로 맞닿기도 하고 평행선을 유지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 꺾직한 두 감정 선을 중심으로 후창의 한시를 분석한 글이다.

후창을 한 사물로 비유한다면 ‘古梅’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피해 적막한 물가에 피었고, 북돋아 주지 못하여 가늘고, 향기 진동하나 바람으로 차단되었으나, 달빛을 받아 아름답고, 천진을 잘 보존하였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게도 자랑하지 않아서이다. 그가 창작한 <偶題>에서 “늦가을 날씨에 풍경이 처량하여, 길손은 늦은 국화 곁에서 높이 읊조리네. 다만 책 속에서 밝은 해와 달을 볼 뿐, 세상 밖 어두운 티끌과 연기 알지 못하네.”⁵⁶⁾라고 한 것은 그의 처세관과 일생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듯 후창은 근현대 유학자이다. 유학 이외의 사상과 종교를 배척한 인물이며, 위정척사를 주장한 인물이다.⁵⁷⁾ 그는 삶에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던 근심과 탄식을 시제로 삼아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節義, 誠敬, 忘憂 등 유학에서의 덕목을 삶의 동력으로 삼아 험난했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근심은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다. 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그 방법 또한 막연하다. 그는 유학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으며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후창의 시인으로서 평가는 내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형식 측면에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예컨대 五言六句의 一韻 ‘和’ 자만 사용한 작품을 창작

56) 卷28, “淒淒風物殿秋天, 客子高吟老菊邊. 但見卷中明月日, 不知世外暗塵煙.”

57) 고려조 문정공 金堉(1211~1278) 선생의 묘를 참배하며 “송경에선 불교의 세가 하늘 닿을 듯하였으나, 큰 도로써 능히 원각편을 배척하셨네.[松京佛學勢滔天, 大道能排圓覺篇.]”라고 노래한 바 있으며(卷26, <拜先祖止浦先生墓有感>), “啾啾圓覺經, 一筆掃清之. 遡爾昌黎後, 斯文功不微.”라고 하며 불교를 조소하기도 했다.(卷31, <敬題祭屏十幅圖畫後 并序 〇辛卯>)

하기도 했으며,⁵⁸⁾ 네 가지 어려움을 노래하면서도 ‘心’字 六韻, 俗 字 八韻, 細 字 八韻, 悔 字 八韻 등을 짓기도 했으며,⁵⁹⁾ 四句體로 시를 짓고서는 注를 ‘賦也’로 표기한 詩經體 한시를 창작했는가 하면,⁶⁰⁾ 시인들이 짓기를 어려워 하는 回文體 한시⁶¹⁾를 창작하는 등 다채롭게 시를 창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로 남겨 둔다.

58) 卷31, <示孫兒夏重> “元氣是太和, 春風暢萬和. 心和與氣和, 是則一身和. 推致家國和, 萬祥在一和.”

59) 卷31. <四難吟> 四首 危莫如人心, 難莫如操心. 霎時又放心, 失身亦喪心. 何者操心, 還在爾之心.[右操心難] 不雅是爲俗, 所以貴絕俗. 絲毫欲諧俗, 究竟一箇俗. 真而不絕俗, 此言亦是俗. 非難辨雅俗, 正難詔拔俗.[右絕俗難] 畢稱克勤細, 召戒不矜細. 大德固集細, 大惡亦積細. 矧復彼宵細, 萋斐張微細. 所關諱匪細, 用功宜精細.[右矜細難] 所貴行寡悔, 欲至無可悔. 何以致寡悔, 始由能知悔. 既悔復有悔, 是之謂頻悔. 莫說無可悔, 亦難得寡悔.[右寡悔難]

60) 卷27, <黃鳥 二章> “嗟爾黃鳥, 笙簧百轉. 哀我民生, 溝壑幾轉. 樂子之風流燕晏. [賦也] 嗟爾黃鳥, 遍身金衣. 哀我民生, 百結布韋. 樂子之富貴炫輝. [賦也]”

61) 卷27, <感秋 用回文體> “碧樹看秋早, 寒牕客夢驚. 百蟲吟草露, 孤鳥下天晴. 白日新添色, 青山變舊形. 覓詩清景對, 感歎一平生.”

참고문헌

『後滄集』

한국고전번역원 웹DB <https://db.itkc.or.kr/>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강동석, 「『後滄集』 解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1.

김근호, 「後滄 金澤述의 良齋 性理說 계승과 의미」, 『공자학』 47, 2022.

(DOI : 10.37300/GongJa.47.6.)

박순철, 「後滄 金澤述의 學問과 思想」, 『유교사상연구』 36, 2009.

(DOI : 10.23012/tsctc.36.200906.141.)

———, 「後滄 金澤述의 文藝論 研究」, 『중국학논총』 45, 2015.

(DOI : G704-000855.2015.46.002.)

신상후, 「良齋 氣質體清說의 계승과 발전: 後滄 金澤述의 心性論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6, 2023.

(DOI : 10.35504/kph.2023.76.002.)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후창 김택술의 학문과 사상」 발표집, 2003.

| Abstract |

Conflicting Images and Their Meaning in Kim Taek-sul's Chinese Poetry

Kang, Dong-seok

Honam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nior Researcher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flicting image of despair and hope in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scholar Kim Taek-sul's poetry and examines what it means.

As is well known, modern and modern times are the periods of bold events in Korean history, such as Japanese colonial era,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Kim Taek-sul, a scholar of Chinese literature who spent that time, was a person who tried to protect the rightness of China and defeat evil, lamenting the world of bullets and bullets, and realistically describing how he lined up armed with a gun knife in front of his house every day. Therefore, his poems are mainly filled with anxiety and sighs. That's because, as he said, the country went down and the road went down. In the end, the emotion was recited as a song of despair.

However, Hu Chang, who believed that human history would be the same as nature, which repeats the rise and fall, also sang a clear and bright image and sang hope. Cheongsan Mountain, the moon, high mountains, and clear water were recited, revealing the smallness and clarity in them. In addition, the anxiety was overcome by the teachings of 節義, 誠敬, 無私心 acquired through studying abroad, and the clear costume eventually led to a hopeful song.

金澤述 詩에 있어서의 相衝的 意象과 그 含意 249

Key words : Modern and contemporary, Han scholar, Hu Chang Kim Taek-sul, Utan, and imagery

투고일 : 2023년 7월 17일 심사기간 : 7월 25일 - 8월 10일 게재확정일 : 8월 10일

www.kci.go.kr